

韓國史의 舞臺는 韓半島만인가?

特輯 韓國史의 論爭點

申

夔

鎬

(高麗大文科大教授·國史)

지금 우리나라의 領土는 鴨綠江과 豆滿江을 경계로 한 韓半島에 국한되어 있으나 옛날에는 南北滿洲와 沿海州지방까지도 우리 민족의 活動舞臺였다.

우리 민족은 「아시아」北方系統에 속하는 「통구스」족의 한부분으로서 有史 이전 西北方으로부터 滿洲와 韓半島에 들어와 오랫동안 原始生活을 하다가 西紀前 3·4세기경 中國의 戰國時代에 平壤의 古朝鮮을 중심으로 북쪽 長春지방에 扶餘, 鴨綠江유역에 濊貊 咸鏡道지방에 臨屯, 黃海道지방에 眞番, 漢江 이남지방에 辰國과 그 지배하에 있는 馬韓, 辰韓, 下韓의 여러 部族國家가 발생하여 우리 민족의 歷史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 祖上들이 滿洲와 半島의 江山을 개척하자 中國의 漢族이 이것을 탐내어 우리나라에 침입하였다. 西紀前 194년에 黃人 衛滿이 침입하여 古朝鮮과 濊貊, 眞番, 臨屯를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衛滿朝鮮을 성립시켰으며, 西紀前 108년에 漢武帝의 침입으로 인하여 衛滿朝鮮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漢四郡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아니하여 濊貊의 옛땅 鴨綠江유역에 高句麗가 일어나고, 臨屯의 옛땅 元山 江陵을 중심으로 한 東海岸지방에 東濊, 咸鏡道지방에 沃沮가 일어나 漢江 이남에 있는 馬韓, 辰韓, 下韓의 三韓 여러 나라와 협조하여 辰韓자 漢의 郡縣을 공격하였다. 그 까닭에 漢은 四郡을 설치한지 25년 만에 지금의 黃海道지방에 설치하였던 眞番郡과 元山일대에 설치하였던 臨屯郡을 폐지하고 鴨綠江유역에 설치하였던 玄菟郡의 郡治를 奉天방면으로 이전시켰다. 그러나 玄菟郡과 平壤지방의 樂浪郡 및 遼東지방의 遼東郡을 강화하여 계속 滿洲와 韓半島 남북부를 統治하였다. 이후 우리 민족의 여러 部族도 계속 抗爭하였거니와 그중에도 가장 맹렬히 투쟁한 것은 高句麗였다.

高句麗는 1세기 太祖王시대에 주위에 있는 여러 部族을 統一하고 漢族에게 빼앗긴 領土를 모두 찾기 위하여 遼東, 玄菟, 樂浪 郡을 공격하면서 西進政策을 취하였다. 이후 3백여년간 高句麗는 漢族과 문자 그대로 血關을 전개하였다. 그 까닭에 遼東太守 公孫

康과 魏將 毋丘儉 및 燕王 慕容暉의 공격을 받아 세 번이나 서울 國內城 丸都城이 함락되고 王母가 사로잡혀가는 등 기막힌 屠戮을 당한 일도 있으나, 백제불교의 정선사를 가진 高句麗 사람들은 鬪爭을 계속하여 마침내 4세기초 美川王시대에 平壤의 樂浪郡과 黃海道의 帶方郡 公孫康이 新設한 鎭을 격멸하여 4백여년간 半島일각에 土王시대에 遼東, 玄菟兩郡을 擊滅함과 동시에 滿洲 동북방에 있는 肅慎 즉 靺鞨(滿洲族)의 여러 部族을 征服하고 文咨王시대에 長春지방에 있는 扶餘를 합병하여 遼河 이래 滿洲 땅을 완전히 차지하고, 長壽王시대에는 三國을 統一할 목적으로 서울을 平壤으로 옮겨 百濟를 征服하여 領土를 島嶼, 竹嶺까지 확장하였다. 그리하여 高句麗는 극동의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 뒷날 隋煬帝의 百萬大軍을 섬멸시키고 唐太宗의 鎭압군도 격퇴하였다.

이와같이 古代에 있어서 우리 民族의 活動範圍는 韓半島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南北滿洲와 沿海州지방의 넓은 땅이 모두 우리 민족의 활동무대였다. 그러나 7세기 중엽 新羅의 三國統一을 계기로 우리 민족의 활동무대가 매우 축소되었다. 新羅가 唐과 연합하여 百濟와 高句麗를 쳐서 멸망시키고 처음으로 우리 민족을 통일한 것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 하겠으나, 新羅는 高句麗의 領土와 人民을 다 통일하지 못하고 다만 平壤이 남의 땅을 차지하였을 뿐이요, 그이북 滿洲의 넓은 땅을 모두 唐에 빼앗기고 말았으니 新羅統一은 실로 우리 民族에게 큰 손해를 가져온 사건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新羅統一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의 활동무대가 半島안—— 그것도 平壤, 元山이 남으로 국한되었으나, 高句麗가 멸망하지 30년을 지나 高句麗遺民은 獨立運動을 일으켜 滿洲동북부와 沿海州

지방을 도로 찾은 사람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渤海의 太祖 高王大祚榮이다. 大祚榮은 高句麗의 遺將으로서 高句麗가 망한 뒤가 죽을 데리고 營州에 거주하다가 唐나라 則天武後시대에 契丹人 李盡忠이 叛亂을 일으키자 大祚榮도 高句麗遺民과 일찌기 高句麗에 附屬해 있던 靺鞨의 무리를 거느리고 東牟山에 옮겨가서 독립운동을 일으켜 마침내 渤海를 건국하였다(699년). 渤海는 滿洲 東北部에 있는 지금의 牧丹江省 東京城에 도읍을 정하고 遼東지방과 半島일부를 제외한 옛날 高句麗영토를 거의 다 차지하였다. 대개 遼陽이동의 滿洲와 沿海州 및 元山이북의 威鏡道지방이 모두 渤海의 領土가 되었다. 이와같은 광대한 領土를 가진 渤海는 남방의 新羅와 對立하여 백여년간 존속하였다. 그리고 新羅와 같이 唐나라 文化를 수입하여 그 文化도 크게 발전하여 唐나라로부터 海東盛國이란 말을 듣게 되었다.

이와같이 渤海는 高句麗遺民이 高句麗故土에 건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2백여년간 新羅와 南北으로서로 대립하여 있었기 때문에 舊韓國시대의 우리나라 歷史家들은 新羅, 渤海 양국을 南北朝라 하고, 그렇게 國史教科書를 편찬하였으며, 解放후에도 黃羲敦, 張道斌 선생과 같은 老史學家들이 新羅 渤海의 南北朝論을 고집하여 각각 그렇게 國史教科書를 편찬하였으나 대부분의 史學家들은 南北朝論을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① 옛날부터 新羅, 渤海를 南北朝로 기록한 문헌이 하나도 없다. 『三國遺事』가운데 渤海를 北國으로記錄한 것이 두어 곳 보이나 이것으로 南北朝論을 성립시킬 수 없는 것이다. ② 新羅와 渤海는 2백년간 아무런 교섭이 없었다. 당시 新羅가 자주 唐과 교통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渤海도 자주 唐과 교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東海를 건너서 日本과도 여러번 交通하였는데 同族의 나라인 新羅와는 한 번도

서로 왕래한 적이 없으니 아려한 두 나라를 가지고 南北朝로 두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④ 뿐만 아니라 渤海의 지도자는 高句麗遺民이나 國民大衆은 滿洲族의 조상인 靺鞨族인 까닭에 두 나라文化는 완전히 다르게 발전하여 마침내는 言語, 風俗까지도 다르게 되었으니 두 나라를 南北朝로 다룰 수는 없다.

그러나 渤海의 건국자와 지도자가 高句麗遺民이오, 渤海가契丹에게 망하게 되자 太子 大光顯을 비롯하여 渤海의 指導者 수만명이 同族의 나라 高麗로 이주하였으니 渤海의 歷史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지금도 國史教科書에 渤海의 역사를 新羅史와 병립시켜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日本人學者 가운데에는 高句麗 및 渤海의 역사를 韓國史로 다루지 않고 滿洲史로 가져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 稻葉岩吉의 『滿洲發達史』(1933년)와 『滿洲國史通論』(1931년)을 비롯하여 大原利武의 『概說滿洲史』(1931년), 及川儀右衛門의 『滿洲通史』(1933년), 豊田要三의 『滿洲史』(康徳10년 등 소위 滿洲國이 건설된 이후에 쓰여진 滿洲史가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高句麗, 渤海의 歷史뿐만 아니라 古朝鮮·扶餘·濊貊도 또한 滿洲史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들은 扶餘族, 濊貊族을 滿洲族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古朝鮮 및 扶餘, 濊貊과 扶餘의 한부분인 高句麗의 역사를 모두 滿洲史에 편입시킨 것이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 扶餘, 濊貊은 三韓과 아울러 우리 민족을 구성한 주요 部族이며 滿洲族과는 다른 것이다. 滿洲族은 12세기 초에 金을 建國하고 중국에 침입하여 宋을 정복하고 백여년간 楊子江 이북 中國民族을 지배한 일이 있고 近世에 淸國을 건설하여 2백 60여년간 中國 전체를 지배한 우수한 民族이다. 그러나 古代에는 肅慎 또는 挹婁라 하였고 隋代에는 勿吉, 唐代에는 靺鞨이라 하여 高句麗에 부속

하였으며, 宋 이후 女眞 또는 女直이라 하고 高麗와 契丹에 부속하였다. 그러므로 古朝鮮과 扶餘, 濊貊, 高句麗를 滿洲族의 歷史인 滿洲史로 取扱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渤海의 역사도 그 건국자와 지도자가 우리 民族인 高句麗遺民이며 渤海 멸망후 그 遺民 수만명이 동족의 나라 高麗로 歸化한 것을 보면 또한 滿洲史로 다룰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大原利武의 『概說滿洲史』에는 渤海太祖 高王을 靺鞨의 酋長 大祚榮으로 記述하여 渤海의 건국자 大祚榮이 高句麗遺將이 아니오 滿洲族인 靺鞨의 酋長으로 記錄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의 좋은 면을 말살하려는 日本人의 상투수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쨌든 우리 민족은 高句麗, 渤海 멸망후 滿洲의 넓은 영토를 상실하고 오직 平壤, 元山 이남의 좁은 영토 안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高麗太祖 王建은 高句麗 영토를 회복하려고 하는 큰 이상을 품고 北進政策을 취하였다. 그는 建國후 곧 高句麗의 옛 서울 平壤을 西京이라 하고 이를 개척하여 北進의 기지로 삼고 그 이북에 있는 女眞人을 달래기도 하고 征伐도 하여 領土를 淸川江 유역까지 확장하고 咸鏡道 방면에도 손을 대어 永興까지 進出하였다. 高麗太祖의 北進政策은 高麗建國의 일대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일대일이 되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高麗 초기 光宗 때에 다시 女眞을 쳐서 영토를 博川江 유역까지 확장하고, 成宗 때에 契丹將軍 蕭遜寧이 침입하여 영토 당토않은 이유로 高麗가 가지고 있는 高句麗 옛 땅을 내어 놓으라고 요구할 때 徐熙의 외교적 妙腕에 의하여 영토를 빼앗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龍州 鐵州 등 江東 6州를 설치하니 領土를 鴨綠江 하류 지방까지 확장하였다. 이후에도 高麗는 기회 있을 때마다 北進을 계속하였거니와 遼, 金, 元, 明과 같

은 강력한 國家가 계속 나타나 滿洲지방을 관할하였기 때문에 북진
이 불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蒙古 침입 당시에 慈悲嶺, 鐵嶺이 북
지방과 濟州島를 원나라에 빼앗기고 말았다. 慈悲嶺이 북 平安道지
방은 忠烈王시대에 도로 찾았으나 鐵嶺이 북 威鏡道지방과 濟州島
는 원나라가 망할 때까지 회복하지 못하였다. 恭愍王시대에 원
나라가衰弱해지자 恭愍王은 鐵嶺이 북지방을統治하기 위하여 실치
한 원나라의 雙城總管府(永興)를 공격하여 鐵嶺이 북지방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다시 北進하여 威鏡道방면은 鏡城까지, 平安道방면
은 江界까지 진출하고 綱王시대에는 遼東지방을 수복하기 위하여
遼東役을 일으켜 李成桂, 李敏修로 하여금 明나라 遼東을 치게 하
였으나 李成桂의 威化島回軍으로 인하여 성공하지 못한채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高麗의 뒤를 이은 朝鮮太祖 李成桂도 또한 북진정책을 계속하
여 豆滿江하류지방을 經略하였다. 특히 豆滿江하류지방은 太祖의
高祖와 曾祖가 살던 곳이므로 太祖는 이 지방을 극히 중요시하고
開國후 그 아들 請安君 芳遠(太宗)과 開國功臣 鄭道傳, 李之蘭(女眞
人歸化者) 등 國家의 重臣을 과전하여 慶源郡을 設置하고 이 지방
을 統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지방에 살고 있는 女真人(野人),
兀良哈, 兀狄哈 등 여러 部族이 우리 統治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
고 여러번 叛亂을 일으키므로 太宗 때에 할 수 없이 慶源郡을 鏡
城방면으로 전환시키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게 하였다. 그런데 世
宗대에 이르러 兀狄哈部族이 지금의 會寧지방에 있는 吾都里 部
族을 襲擊하여 女真人 사이에 內亂이 일어나므로 世宗은 이 기회
를 놓치지 아니하고 당시 智勇이 겸비한 유명한 政治家 金宗瑞를
이 지방에 과전하여 혹은 벼슬과 物品으로 女真人을 회유하고, 혹
은 兵力으로 威壓하여 마침내 豆滿江하류지방에 會寧, 穩城, 領城,

慶源, 慶興, 富寧의 六鎮을 개척하여 豆滿江이 남지방을 완전히 우
리나라 영토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때 鴨綠江 건너편 西間島 지
방에 建州衛 酋長 李滿住가 나타나 懷仁 동방에 있는 兀刺山城을
근거로 자주 우리나라 邊境에 침입하므로 世宗大王은 그 15년에
平安兵使 崔潤德을 과전하여 이를 정벌하고 19년에 다시 平安兵
使 李葳를 과전하여 두번이나 그 소굴을 뒤집어엎고 이와 전후
하여 江界이 북 鴨綠江 상류지방에 閔延, 慈城, 茂茂, 茂昌, 三水
郡 등을 설치하여 鴨綠江이 남지방을 완전히 우리나라 영토로 만들
었다. 鴨綠江과 豆滿江을 경계로 한 현재의 우리나라 영토가 확
정된 것은 실로 世宗大王시대의 일이다.

이와같이 女真人을 정벌하여 鴨綠江과 豆滿江방면으로 領土를
확장하였으므로 이후 강 건너편으로 쫓겨간 女真人들이 자주 우리
나라에 침입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世祖, 成宗 양대간
에 각각 한번씩 西征軍과 北征軍을 일으켜 鴨綠江과 豆滿江 건너
편의 女真人을 정벌하였다. 豆滿江방면은 六鎮을 개척한 이후 江
 건너편에 있는 兀良哈, 兀狄哈들이 자주 侵入되었거니와, 특히 世
祖 5년에 毛憐衛 兀哈, 酋長 阿比車가 대거 會寧지방에 침입하므로
申叔舟가 2만의 北征軍을 거느리고 豆滿江을 건너가 그 소굴을
분탕하고 돌아왔으며, 成宗 22년에 兀狄哈가 造山堡에 침입하여
慶興府使 韓興實을 살해하므로 許琜이 北征軍 2만을 거느리고
豆滿江을 건너가 크게 國威를 떨치고 돌아왔다. 다음 鴨綠江방면
은 世宗 때 두번이나 建州衛 酋長 李滿住를 征伐했으나 그후 李滿
住는 곧 세력을 회복하여 鴨綠江연변에 새로 설치한 閔延, 慈城,
茂茂, 茂昌郡에 침입하여 마치 아니하므로 世祖 元年에 閔延 등 4郡
을 폐지하고 그 人民을 江界지방으로 후퇴시켰다. 그런데 建州衛
는 우리나라에 만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明나라의 邊境에도 침입

하므로 明나라에서 이것을 협력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므로 世祖 12년에 康純이 西征軍을 거느리고 鴨綠江을 건너가 그 근처의 兀彌府(元刺山城)를 분탕하고 李滿住를 잡아 죽였으며, 成宗 10년에 또 明나라의 요청에 의하여 尹弼商이 西征軍 2만을 거느리고 鴨綠江을 건너가 다시 建州衛를 정벌하였다. 그러나 世祖, 成宗 양대간의 西征과 北征은 滿洲 땅을 도로 찾자는 것이 아니요, 우리 나라에 침입하는 女真人을 응징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상 叙述한 바와 같이 高麗建國 이후 朝鮮朝에 이르기까지 千餘년 동안 우리는 高句麗 故土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鴨綠江과 豆滿江까지 진출하였을 뿐이요, 滿洲의 넓은 땅은 조금도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朝鮮朝에 이르러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間島地方으로 移住하였기 때문에 間島問題가 일어나 中國과 우리나라 사이에 關한 領土紛爭이 일어나게 되었다. 間島는 白頭山 東北쪽 豆滿江과 土門江(松花江上流) 사이의 北間島內의 地域을 말하는 것으로 본래 高句麗와 渤海의 옛 땅이나 女眞族이 살고 있던 곳이다. 女眞族이 淸國을 건설하고 中國을 지배한 뒤, 女眞人이 모두 中原으로 이주한 까닭에 이 지방이 텅 비게 되었다. 그러나 淸國은 이 지방을 그 祖上의 發祥地라 하여 극히 중요시하고 1712년 (肅宗 38년, 淸康熙 51년)에 穆克墩을 우리나라에 보내서 우리나라 대 靑朴權과 함께 白頭山에 올라가 定界碑를 세워 鴨綠江과 土門江으로 淸國과 우리나라의 境界를 삼고 우리나라 사람을 이 지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19세기 중엽에 淸國이 歐洲列強의 침략을 받아 國力이 쇠약해지자 白頭山에 대한 禁令도 옛날과 같이 엄하게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哲宗 말년부터 우리나라 각지의 流民이 많이 이 지방으로 흘러 들어가 白頭山

東北部에 있는 北間島 지방뿐만 아니라 白頭山 西쪽에 있는 西間島 지방까지 우리나라 農民이 퍼지게 되었다. 이에 淸國은 크게 당황하여 1881년(高宗 18년)에 우리나라에 抗讓한 까닭에 間島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鴨綠江과 土門江을 경계로 한 白頭山定界碑文종의 土門江은 松花江의 源流인 土門江 지칭한 것이요, 白頭山定界碑가 또한 鴨綠江과 松花江상류 土門江과의 분수령에 서 있는 것을 근거로 松花江以東 間島 땅이 우리나라 영토라 주장하고, 淸國은 土門江은 松花江의 源流를 지칭한 것이 아니요, 豆滿江을 가리킨 것이라 하여 30여년 동안 外交戰을 전개하였다. 1905년에 소위 保護條約이 체결되어 우리나라 外交權이 日本에 넘어가게 되자 間島문제도 자연히 日本政府로 넘어가게 되었다. 日本도 처음에는 間島를 韓國영토로 주장하고 統監府 間島出張所를 설치하고 이 지방의 住民을 보호하다가 1906년에 淸國과 타협하여 安奉線과 撫順炭鐵 등을 교환조건으로 間島의 주권을 양양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의사가 아니요, 또 間島지방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全住民의 8할 이상을 점령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地方을 도로 찾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白頭山 서쪽 西間島 지방에도 우리나라 사람이 住民의 8할 이상을 점령하고 있으니 이 지방도 도로 찾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옛날의 高句麗 故疆을 다 찾지 못할 망정 白頭山을 중심으로한 近世 우리 農民이 개척한 西北間島의 땅은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